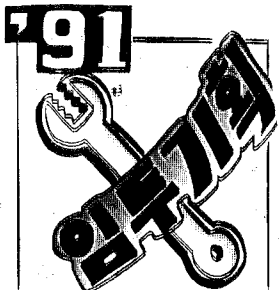


노동자 복지 위장한 허구적 논리



<2> 정부의 임금관련 정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임금인상 탓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89년 하반기부터 90년 까지 남한 자본주의는 86~88년의 3년 호황이 부채를 막아 준 것만 같았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진정한 책임은 남한 자본주의가 처한 속박구조상의 위기를 파급한 실비 및 연공급과 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극복하려 하기 보다는 경기가 침체하자 재빨리 3년 호황 시기에 축적한 부채를 부채상환, 폐회, 합작, 합병에의 투자로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떠넘린 독점자본에 있었다. 이를 폭로하고 정권과 독점자본의 공세를 무력화시켜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노동자 계급을 포함한 민중운동 진영의 대응은 대단히 미흡했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출하고 이를 투쟁으로 조직화하지 못했던 것이 이유의 하나였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

인 원인은 정권과 독점자본이 이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 민중운동 진영의 힘은 아직 조직적 힘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기침체'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대한 부담을 가져왔으며, 심지어는 노동자 계급을 91년 경제안정을 위한 '노사안정 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사전에 제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첫째 임금인상의 한도 수 억제 및 기존에 1년이던 임금협약기간의 2~3년으로의 연

장시켰다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정권과 독점자본의 관성으로 뒤집혔다. 자신들이 획득한 일시적인 승리에 자만하는 정권과 독점자본은 91년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7일, 경제기획원은 '91년 경제안정을 위한 노사안정 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사전에 제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첫째 임금인상의 한도 수 억제 및 기존에 1년이던 임금협약기간의 2~3년으로의 연

‘아간대학 진학 기회 확대’ ‘사내 복지기금 확대’ ‘공단지역내 탁아소 설치’ 등 복지정책의 시행을 임금인상 한자리를 억제하는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내놓은 것이 대기업의 우선 타결과 정부 출연기관, 투자기관의 임금억제책이다. 노동자들의 추곡수매가를 한자리수로 억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들의 공세는 손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91년 임부를 앞두고 정권과 독점자본의 이러한 공세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작년 말의 회계연도 대폭 인상에서 이어 출몰이 인상되기 시작한 각종 서비스 요금, 공공요금들의 투자비 수 인상은 노동자들에게 한자리를 임금인상을 감내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미 작년 말에 국회의원원 세비는 저를 스스로의 답답에 의해 28.4% 인상된 바 있다. 더구나 물가상승의 주범이 정



그렇다면 현재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들이 처한 조건은 어떠한가? 추방문제만 보더라도 독점자본이 작년에도 부동산투기로 170조원을 얻은 채로 쟁전 반년째 3, 4월에 하를 모르고 치솟은 전, 월세값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람만해도 일다섯명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계급에서도 추방문제만 해도 노사분규 이상으로 현 체제의 전복을 가져올

예외의 투자기회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인하여 생긴 이러한 현상은 이제 광범위한 신기술 노동력을 유인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해결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해의 노동력 수입 자유화’라는 것이다. ‘대책’에서 제출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짚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젊은 노동자들의 학자금 등을 막아 두었다는 야간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늘리고 있는 부인 노동력을 공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에 있어 91년 임부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즉 임금인상 그 자체만이 아니라 정권과 독점자본의 공세에 해기를 막음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정당성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다가올 92~93년의 권력재편을 앞두고 노동자 계급의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이미 이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은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는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노사 안정대책’은 정부의 개량화 술책 공동임투로 독점자본공세 빼기 박아야

사회·학원 민주 지향하는 동문모임

학내관련단체 탐방<2>...민주동문회

“기존의 총동창회는 학원을 중심으로 동문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면이 강했습니다. 이와 달리 민주동문회는 학원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학원 민주화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활동하는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88년8월28일에 정식으로 출범한 경희총민주동문회(이하 민동)의 김병수(본교동문, 수학과2) 사무총장은 민동의 성격에 대해 밝힌다. 지금은 전국 각 대학에 약 40여개에 이르는 민주동문회가 결성되어 각기 나름대로의 역사와 특색을 가지고 변혁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6월에는 ‘전국대학 민주동문회 대표자협의회’까지 조직하였다.

이제 출범한 이래 3년째를 맞고 있는 본교 민동을 살펴보면, 50년대부터 80년대 학번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동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대략 1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물론, 민동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80년대이후의 젊은 동문들이다. 한편, 전국 민동중에서 가장 내실있고 활기차게 활동을 벌여가 타 민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본교 민동은 학번별로 이루어진 타대학 민동과는 달리 파단위로 조직되어 동문과 재학생들과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민동체계는 국문과를 포함한 13개의 지부로 구성되어있고 이와 더불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민동은 학내와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사회와 학원속에 울리는 자리매김해야

민동의 중심활동으로 지난 4월부터 해오고 있는 ‘故 이우형선생 추모 사업’과 매월 1회 발행하는 ‘민주경향’등이 이외에도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민동이 지금은 학원을 떠난 동문들로 이루어진 조직이지만 재학생들과의 연대를 통한 학원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민동은 학생들과의 연대를 위해 총학생회는 물론 과학생과 단위에 걸친 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본교 출신 양심수에 대한 지원활동도 벌이고 있다. 또한 재학생과의 협력에서 장차 그들이 민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있다. 한편, 민동은 조직강화와 재정문제에 대해 주력 해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민동이 질적, 양적으로 계속 성장해가려면 현재 지부체제로 되어있는 조직의 역량강화, 의식수준고양 등은 필연적인 것이라 사업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재정 문제도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민동이 결성된후 나름대로 목적의식을 갖고 많은 사업을 기획, 실행하였지만, 단지 하나의 동문회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관된 목적의식 고양과 함께 재학생과 동문의 연대감을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과의 결합이 사업에서 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만남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제 시작의 단계에 서있는 민동이 여러 굴곡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사회와 학원에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해 나가리라고 확신한다.

(송보영 기자)

장 들에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의 우선적 타결 유도과 정부 출연기관, 투자기관 임금인상폭의 5~7%선 억제 세제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정책의 추진등이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임금의 급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상실되고 노동자들이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해 물가가 불안해지는 등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임금인상이 됨으로 해서 불필요한(?) 사회 불안이 야기되므로 이 또한 2~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대책은 또 ‘노동자 주택건설’

권이 독점자본의 산업구조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과도한 실비투자자금의 방출, 지자체 선거를 앞둔 권력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통화 남발, 부동산 투기의 조장, 방만한 예산안 편성등에 있음을 세설하는 어린이이며자도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다음으로 복지정책의 추진이라는 것을 살펴보자. 자본주의하에서 개량화 정책의 추진은 그것이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의 강제를 통하거나 혹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혁명적 상황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한 자본가들의 사전양보에 의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을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노동자주택 건설’을 저를 스스로 내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야간대학 진학 기회 및 사내 복지기금 확대, 공단지역내 탁아소 설치등도 속이 편히 들어다 보아지는 마한가지이다. 요즘 ‘해의 노동력’의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한참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입증되듯이 자본가들의 입에서 ‘제조업 구인난’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산간벽지의 학교에 까지 찾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자본가들 스스로가 조장한 ‘제조업

朔風

‘떡고물 만능론’과 ‘떡고물 망국론’

연전에 우연히 함께 여행을 했던 설계 사무소장 P씨의 참담한 고백이다. 건물을 짓는 일과 도로를 포장하는 일을 선택하라면 당연히 그는 도로 포장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떡고물 때문. 건물의 경우 조금이라도 떡고물을 남기려면 전기 설비에서 약간, 외장에서 약간, 합판에서 약간의 때어내는 방법으로도 이삭줄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건물이 완공된 뒤에라도 쉽게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도로 포장의 경우 기존 다저기에 들어가는 자갈의 두께를 10cm만 낮춰도 표면에 적어는 피치를 1cm만 얇게 해도 엄청난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러한 눈속임이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도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자와 이를 감시하는

측이 모두 쉽게 유혹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우리 국토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1번 국도의 평택~성환 구간을 최근 달려본 사립이러면 누구나 이 도로가 된가 들어야할 재료가 덜 들어간 함량미달의 도로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달리고 싶다는 충동이 무색하리만치 움푹 패어있는 옹달샘이 도로 곳곳에 널린 모습은 마치 이곳이 쿠웨이트의 한 외곽 도로가 아닌가 하고 착각하게 만든다. 어떤 도로를 달려서 P씨가 고백한, 떡고물이 빠져나간 도로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토개발연구원이 지난 12월 발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은 2천1년 까지 총2백60조원을 투입하는 아마도 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첫째,지방분산형

국토 골격의 형성 둘째, 생산적이고 자원절약적인 국토 이용계획 확립 셋째, 국민복지의 향상과 환경 보전 넷째,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계획이 실현되면 2천1년의 국토인구는 1만6천8백7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주택보급률도 92.6%로 상승하게 된다. 또 떡 12개를 새로 축조하고 하수처리율도 70%로 높여 국민 생활을 쾌적하게 만든다는 의욕도 담겨있으며 아울러 도로 포장율을 1백%로 늘린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 계획은 시안에 불과하며 2백60조원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비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앞으로 많은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져서 이 안은 좀더 충실한 계획이 되었지만 적어도 이 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떡고물 만능론’의 심각한 도전을 계산에 넣지 않고서는 그 실현 가능성은 도전받을 것이다. 또 비단 P씨가 고백한 떡고물이 도로포장에만 국한된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최근의 몇몇 사건에서 충분히 경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국토개발연구원의 시안은 말그대로 시안에 머물고 말 것이다. 만든지 불과 4년 남짓만에 1번 국도의 평택~성환 구간을 총내내 두터져 가는 88cm짜리 강변도로를 달려서 ‘떡고물 망국론’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홍)

일본유학수속을 기다리는 6개월동안,
일본 Language School(1년동안)에서
배울 일본어 실력도 쌓고,대학입학허가서도
만들고, 입학전에 일본의 대학을
단체로 현지답사도 해보는, 환상의 유학
Course에 참가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트란스트외국어학원
트란스트통역관광학원
트란스트건축전문학원

본교 졸업생은 특별우대

서울역광장앞 4호선전철출입구앞 (02)702-6737/8

軍·행정병 모집

- 행정병 주특기 부여
- 매월 단독 입영
- 6주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 ※ 유사 학원주의
- 사무자동화(OA)병
- 차트(일반행정병)
- 타자 행정병

관인성학원

730-6946~7

관유니타학원

735-2323,9716

英語構文論

TOEFL·VOCABULARY & TOEIC 이 책을 보기 전에 SYNTAX 제5형식 도해부터 연구하는 권위있는 지도교수의 집필된 주제는 무엇일지...
지상강의서
기초·영어문법
₩ 5,800
●아무리 Conversation 이 급해도
●이러한 hearing 이 급해
●도 영어연구와 진보적이며
●과학적인 지상강의서
●조구문론으로부터...
百萬社 266-8304

제4회 전국대학(원)생 논문현상모집

한미은행이 창립 8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현상모집을 실시합니다. 1983년3월16일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의 임무를 담당하고자 설립된 한미은행은 창립하고 내실있는 미래의 은행으로 그동안 각종 학술, 예술, 문화, 장학사업에 끊임없는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실시되는 현상모집은 학생들의 학술인성과 새로운 이론설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리담구 의무에 불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논제: 가. 나. 다. 중 택일
가. 민간주도 경제하의 한국경제 미래상
나. 개방화시대의 금융산업 발전방향
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정책
2. 응모요령
가. 응모자격: 전국 대학(원)생 및 대학원 재학생
나. 응모대상: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10매내외의 요약문 1부 첨부)
다. 응모마감: 1991. 7. 20. (당일치 소우무도 유요)
라. 당선방법: 개별면담 및 심문방고
마. 심사: 위원회는 중립적
바. 제출처: 우리은행110-160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1번지 한미은행
주 한미은행 총합기회부 조자담당장 및
사보조자담
3. 유의사항: 1. 논문제출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대학원생의 경우 학부 및 학과명도 기재
2. 응모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학교명이 인쇄된 원고지: 사용치 않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합기회부 조자담당장에게
문의하면. 전화: 02-731-8062, 8063
4. 상금 및 시상
가. 상금: 1. 최우수논문(1인) - 300만원과 상패
2. 우수 논문(2인) - 각 100만원과 상패
3. 가. 3인 - 각 50만원과 상패
4. 위. 4인 - 각 20만원과 상패
나. 시상: 당선자에 대한 시상식 및 상패는 출우 개편본문
5. 특 전
최우수논문 우수작으로 당선된 학생이 출우 당면 임행을
위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명해 출우는 부여함

한미은행
대표전화: (02) 731-8114